

공연비평 틀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와 적용 - 김광석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을 중심으로

고혜영*, 황경수**

*제주아트센터 기획자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mail:kshwang@jejunu.ac.kr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the framework for criticism of performing arts - Focused on Kim Kwang-seok's musical 'Where the Wind Blows'

Hye-Young Ko*, Kyung-Soo Hwang**

*The Performance Planner of Jeju Arts Center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철학이론을 바탕으로 비평의 틀을 설정하고, 그 틀을 바탕으로 비평하여 제주지역의 공연예술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지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제기코자 했던 것은 지역 공연예술에 대한 비평이 일정한 철학과 미학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학문적 의지를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연구이다.

방법론으로는 문헌고찰을 통해 비평을 위한 예술철학의 틀과 요소를 설정하고, 김광석 뮤지컬 ‘바람이 오는 곳’을 관람한 후 비평의 틀에 맞추어 비평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비평을 위한 예술철학의 틀과 요소 설정

2.1 바람직한 비평의 구조

바람직한 비평을 위한 요소들으로써는 첫째, 미학에 근거를 두기, 둘째, 지역정체성과 지역예술발전을 위한 제안 하기, 셋째, 균형적 비평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간직하리라 할 수 있다.

2.2 비평 틀 설정을 위한 예술철학자들의 논리 탐색

철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비평의 요소들을 정리하였다.[1] [2] [3]

2.3 예술철학을 중심으로 한 비평의 틀 설정

학자들의 논리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향을 찾았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감각적 미와 관조적 미 : 플라톤
- 2) 반성과 진리유도, 그리고 공진 : 아리스토텔레스
- 3)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역할 : 디드로
- 4) 숭고와 감정의 미, 비탄미 : 버크
- 5) 순수미, 쾌의 배제 : 칸트
- 6) 아름다움과 정신 강조 : 헤겔
- 7) 감각적 가상을 이상화와 정신화 : 헤겔
- 8) 실존과 의지 : 니체
- 9) 해방된 지각 유도 : 베르그송
- 10) 창조의 저항성 : 들뢰즈

이 내용을 중심으로 김광석 뮤지컬에 적용하여 비

평하였다.

그 틀을 흐름도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3. 김광석의 뮤지컬 비평

예술철학의 틀
1) 감각적 미와 관조적 미
2) 반성과 진리유도, 그리고 공진
3)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역할
4) 숭고와 감정의 미, 비탄미
5) 순수미, 쾌의 배제
6) 아름다움과 정신 강조
7) 감각적 가상을 이상화와 정신화
8) 실존과 의지
9) 해방된 지각 유도
10) 창조의 저항성
↓
김광석 뮤지컬 ‘바람이 머무는 곳’
2022년 5월 29일 제주공연에 적용
↓
비평을 통한 제주 공연예술활성화를 위한 지향 제안

[그림 1] 공연예술 비평의 틀과 흐름도

3.1 김광석 뮤지컬 개요

3.1.1 김광석 뮤지컬 공연 개요

제주에서의 김광석 뮤지컬은 2022년 5월 29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다.

제목은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다. 세 시와 일곱 시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3.2 예술철학 중심 비평틀을 통한 김광석 뮤지컬 비평

김광석 뮤지컬을 비평하기 위해 김광석의 뮤지컬을 현장에서 관람하고, 김광석 본인의 글과 타인이 김광석에 대한 평론글들을 문헌탐색하였다.[4] [5] [6]

4. 제주에 주는 시사점과 결론

4.1 김광석 뮤지컬 비평의 제주에 주는 시사점

김광석 뮤지컬은 비탄미를 전제로한 비평과 저항의 뜻이 서려있으면서 현대인에게 카타르시스를 부여해

주는 느낌을 주었다.

제주에는 아픔이 많은 곳이다. 조선시대 출륙금지령, 일본 관동군 주둔과 탄압, 4.3의 아픔, 6.25 이후의 예비검속과 집단 학살 등이다. 김광석 뮤지컬은 이러한 제주의 아픔을 읽어내려는 노력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예술이 비극을 승화시켜, 평화의 의지를 생성케 하는 역할을 하라고 강조하는 이슈를 제기했다 할 수 있다.

4.2 결론

본 연구는 철학자들의 논리를 모아 비평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초연구로서 그 틀의 현실에의 적용에 가능성이 있는지 적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철학적 비평의 틀은 비평가들에게 예술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유도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앞으로 이러한 비평의 틀에 대한 보완과 다양한 공연예술 활동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이 지역과 교육, 아름다움 표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시릴 모라나, 에릭우맹 지음, 한의정 옮김, 「예술철학-플라톤에서 들뢰즈까지」, 미술문화, 2013년.
- [2] 프리드리히 니체, 김대경 옮김, 「비극의 탄생/바그너의 경우/니체 대 바그너」, 청하, 2002년.
- [3] 헤겔, 김미애 역, 「헤겔의 음악 미학」, 느낌이 있는 책, 2014년.
- [4] 김광석, 「미처 다 하지 못한」, 예담, 2013년.
- [5] 김용석, 「김광석 우리 삶의 노래」, 천년의 상상, 2016년.
- [6] 김광석, 「김광석과 철학하기」, 김영사, 2016년.